

# 하늘사랑

www.kma.go.kr Vol.382

2013. April 4

특별기고  
취임에 즈음하여

날씨 에세이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스마트한 스타일링'

열린마당  
겨울 꼬트머리에서의 작별  
남극, 비문명 세계에서 살아남기



기상청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자연이 빚어낸 보석」 김춘배님 작품

2012 기상사진전 입선작

자연이 빚어낸 이슬방울이 아침 햇살과 함께  
영롱한 보석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슬은 야간에 복사냉각으로 지표 근처에 있는 물체의 온도가  
이슬점 이하로 내려갔을 때, 공기 중의 수증기가  
물체의 표면에 응결하여 생기는 물방울입니다.



April 4



## Contents

### KMA Special Issue

- 특별기고 취임에 즈음하여 · 02
- 풍경이 있는 날씨촌 선비의 옛길, 문경새재를 걷다 · 04  
눈 덮인 오대산을 가다 · 06
- 날씨 에세이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스마트한 패션스타일링' · 08  
기상청과 함께한 시간들 · 10

### KMA About

- 열린마당 겨울 끄트머리에서의 작별 · 12
- 지식 나누기 ÷ 과학 더하기+ 꿈 곱하기× · 14
- 남극, 비문명 세계에서 살아남기 · 16
- 기상은 내 친구! '기상 아띠' 프로그램에 참가하다 · 18
- 무게 2.7g, 지름 40mm 탁구공의 매력에 빠지다 · 20
- 외국의 기상인들이 본 한국과 KMA · 22
- 포커스 국립기상연구소의 성공적인 제주 이전을 바라며... · 24
- 2030 슬로탈출 이별 후 다시 만난 그녀 · 26

### KMA Hope

- 신간도서 한반도 및 지역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 28
- 날씨만화 황사 · 29
- 포토뉴스 · 30
- 퀴즈 · 32



이일수 기상청장

## 취임에 즈음하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상청장이란 자리는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이면서,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번 박근혜 정부는 '정부3.0' 시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맞춤형 행복을 여는 새 시대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국민이 원하는 행정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할 것입니다. 국민행복시대를 이끄는 선두에는 기상청이 있습니다. 국정 과제를 빛나게 하는 곳이 바로 기상청입니다.

저는 정확하고 가치 있는 기상정보를 생산하여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기상청의 기본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하여 기상청은 창조경제의 바탕이 되고, 국민 행복의 중심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수평 수직간의 흐름이 원활하고, 즐겁게 일하는 기관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기본에 충실할 것입니다. 기상업무는 국민생활의 최일선에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분명합니다.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가치 있는 기상정보와 지진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충분한 선행기간을 두고 기상정보를 제공한다면, 국민행복도를 높게 될 것입니다.

기상예보의 가치는 기상예보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기상예보의 무궁무진한 활용에 있습니다. 정확하고 발 빠른 기상예보를 토대로 방재대책을 세운다면, 이것이 바로 국민행복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이 필요로 하는 기후예측정보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줘야 할 것입니다.

기상청의 재산인 기상기후정보, IT기술능력, 기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전국의 기상관서들이 살아있는 서비스를 하는 것도 기상청의 기본 임무입니다. 이러한 기본 임무 수행에 조금의 빈틈도 없어야 합니다. 참 열심히 일하지만 제대로 일하는 모습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왕 열심히 하는 것이라면 하는 일에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제대로 일하는 조직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기상기후 산업은 창조경제인 동시에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신성장 동력산업입니다. 기상기후 분야가 국가의 창조경제를 이끌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인 기후정보 활용은 신산업 창출과 함께 기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창조경제의 원동력이 됩니다. 기후정보의 산업 활용에 시동이 걸렸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 이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대책 마련에 나설 것입니다. 기상산업은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차곡차곡 쌓은 세계적인 기상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서의 전문 컨설팅에 기상장비 수출이 더해진다면, 기상분야 수출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외에서의 신산업 창출, 기상산업의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키워 나갈 것입니다. 국제협력의 경우, 양적으로 확장하기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기상기구 고위직 진출에 이어, 국제협력 전문가들을 양성해 지구촌 기상업무를 선두에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외부의 벽과 내부의 칸막이를 허물 것입니다. 기상청이 하는 일을 정확하게 알려겠습니다. 우리가 생산한 기상, 지진정보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국민과 언론, 정부 부처, 학계, 산업계에 정확하게 알릴 것입니다.

이것은 기상청이 일하는 이유이며, 존재의 이유이고 보람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외부와의 벽을 허무는 것이라면 내부의 칸막이 제거는 기관 내 원활한 의사소통을 말합니다. 부서와 부서간의 의사전달, 상급자와 하급자의 의사전달, 동료 간의 의사전달이 막힘없이 흐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론의 문이 닫히고 오해가 일어나는 일들은 분명히 극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소통의 첫 걸음은 경청입니다. 제 의견을 제시하기에 앞서, 청내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넷째, 조직의 내실을 다지고자 합니다. 저는 직원들의 복지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직장은 행복하고 즐거워야 하며, 즐겁게 일해야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그동안 보여주는 전시행정에 급급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 볼 시기입니다. 행사 위주의 보여주기 위한 행정에서 벗어나, 의미를 부여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즐거운 조직문화와 공직윤리는 같은 것입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조직 전체가 우울해집니다. 행정 신뢰도, 국민 신뢰도가 떨어지면 기상정보의 신뢰도도 떨어집니다. 저를 포함해서 전 직원이 개인의 행동이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업무에 임할 것입니다.

기상청은 기본에 충실한 기상청, 창조경제를 선두에서 이끄는 기상청, 언론이 열린 기상청, 내실 있고 즐거운 기상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푸른 청년의 초심으로 국가와 국민, 기상청과 기상가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선비의 옛길, 문경새재를 걷다



정소정 / 상주기상대



높은 산이지만 길이 나 있어 넘어 다닐 수 있는 고개를 '영(嶺)', 순 우리말로 '재'라고 한다. 우리나라 땅덩어리의 2/3가 산인 만큼 대관령, 추풍령, 천동산 박달재, 문경새재 등 우리나라에는 재도 많고 영도 많다. 그리고 그곳에는 선현들의 한이 서려있고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있다. 한양과 영남을 잇는 길목이었던 문경새재도 그러하다.

문경새재는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에 위치하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고개로 알려져 있다. 조선 태종 14년에 개통된 관도 벼슬길로, 조선시대 옛길을 대표한다. 또한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인이 꼭 가 봐야 하는 여행지' 3위에 오를 만큼 인기 여행지로 알려져 있어 사람들의 발길이 연중 끊이지 않는다.

날아다니는 새도 넘기 힘들 만큼 높고 험한 고갯길이라 하여 '문경새재'라고 불리는데, '문경'이라는 명칭도

과거에 급제한 선비들이 소식을 빨리 전하기 위해 돌아오던 길이기도 해 '경사스러운 소리를 듣는다'라는 의미에서 유래했다는 말도 있다. 그만큼 이곳은 수많은 선비가 청운의 꿈을 안고 넘었던 고개이자, 낙향하는 관리들이 허전함을 달래며 쉬어가던 쉼터이며, 영남의 보부상들이 무거운 봇짐을 메고 "굽이야 굽이야 눈물이 난다~"라고 한탄하며 넘던 민족의 고개이다. 자, 문경새재로 이제 함께 출발해보자~!

제1관문인 주흘관 앞에 서니, TV 사극 속 단골장면이 연상됐다. 바로 가난한 선비가 꼭 과거에 급제하여 어려운 집안을 일으키겠노라고 어머니께 눈물 젖은 인사를 하고 떠나는 장면 말이다. 제1관문을 시작으로 맑은 계곡물과 숲이 어우러진 흙길은 '걷는 맛'의 묘미를 한껏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문경새재의 매력은 뭐니 뭐니 해도 '걷는다' 그 자체에 있다. 부드러운 흙길이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맨발로 걷는 것을 권유하고 있다. 신발을 두 손에 들고 맨발로 저벅저벅 걸어주는 센스! 하루 종일 고생했을 내 발에게 잠깐이나마 휴식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처음에는 맨발로 걷는 것이 조금 어색했지만, 발에 지그시 밟히는 마사토의 까칠함이 좋을뿐더러 발바닥 지압효과로 일상 속에서의 피로도 해소되니 아주 굿, 굿, 굿이다!

제1관문에서 3관문까지의 거리는 6.5km의 오르막길이다. 일반인들의 차는 통제돼 옛 사람들이 그랬듯이 다리뎠다 넘어야 한다. 누가 그랬던가, 체력이 곧 국력이라고. 문경새재가 험난한 걸까, 아님 내가 그 흔히 말하는 '저질체력'인 걸까? 오를수록 숨이 턱턱 막혀왔다. 원인은 아무래도 후자인 듯하지만, 과거 급

제는커녕 몸살이나 안 걸리면 다행이다 싶었다. “굽이 야 굽이야 눈물이 난다~”는 노래가 절로 나왔다. 하지만 주위에 둘러선 수려한 산세와 길 따라 곳곳에 숨은 절경과 유적들을 보고 있으니, 힘든 것도 잊게 됐다. 제2관문인 조곡관을 지나면 굽이굽이 파리를 틀어 이어진 고갯길, 약간 가파르지만 한층 깊어진 숲의 고즈넉함을 그대로 드러낸다.

문경새재는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이곳에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다. 한 가지 일화를 들자면, 임진왜란 당시 관문 하나 없이 무방비로 충주까지 왜군을 통과시켜 한양을 적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했던 곳이 바로 새재 길이었다. 이후 굳건한 성벽을 쌓아 방비하였는데, 그 후 이곳을 통과하려 했던 외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하니 사후약방문이 되고 말았다고 한다. 역사를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배우게 되지만, 뭘든지 당하기 전에 대비하는 게 최고인 듯하다.

또한 재미있는 전설을 지닌 ‘꾸구리 바위’라는 것도 있는데, 이 바위 밑에는 송아지를 잡아먹을 정도로 큰 꾸구리(민물고기)가 살고 있어 지나가는 예쁜 아가씨나 젊은 새댁들을 괴롭혔다고 한다. 근데 왜 내가 지나갈 때는 꾸구리가 나오지 않았을까? 아주 살짝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꾸구리 바위 근처에 있는 ‘산불도심비’도 눈여겨 볼만하다. 처음 봤을 때는 ‘누가 이런 관광지에 저런 오타를 내놨어!’라고 생각했는데, 고어인 ‘도심’으로 기록한 유일한 한글비석이기에 그 가치를 인정받아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술한 사연이 오고간 민족의 고개 문경새재, 어느 고장이나 고개에는 떠나는 이와 남는 이가 엮어내는 이별의 정한이 서려있다. 그리고 그것의 한풀이가 바로 민요 ‘아리랑’이다. 문경새재에도 마찬가지로 이 아리랑이 있다.

“문경새재 물박달나무 흥두께 방방이로 다 너간다. 흥두께 방방이 팔자 좋아 큰 애기 손길에 돌아난다. 문경새재 넘어갈 제 구비아 구비아 눈물이 난다.”



가슴에 하나씩 사연을 품고 새재를 넘을 때, 고되고 적막한 길 위의 피로를 옛사람들은 아리랑 가락을 흥얼거리며 풀었을 것이다. 이렇게 술한 사람과 그들의 이야기가 담긴 우리 민족의 고개가 바로 문경새재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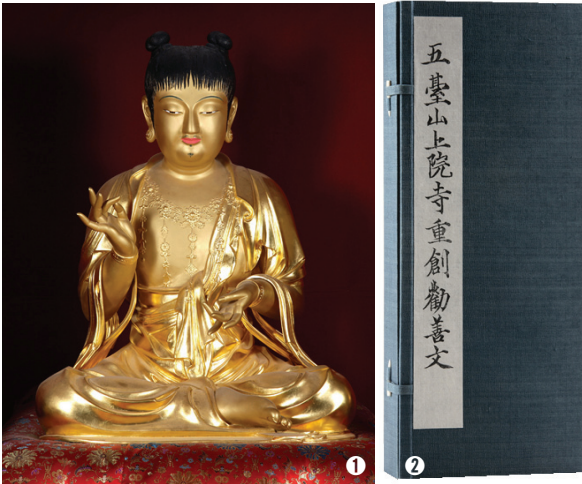
흙길의 정취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문경새재 고갯길은 관문 이외에도 원래 터를 비롯해 경상도 신구 관찰사가 인수인계하던 교귀정, 옛 모습을 그대로 복원한 주막과 팔왕폭포 등 볼거리가 다양해 걷는 길이 심심치 않다. 또한 드라마 <태조왕건>을 시작으로 <대조영>, <대왕 세종> 등의 촬영지이기도 해,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민속촌도 형성되어 있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여행객들을 불러들이고 있다.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 청록의 제 기운을 다시 찾아가는 이 아름다운 계절, 봄!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 온 몸 깊숙이 폭 꺼진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걷기’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문경새재로 오라!

# 눈 덮인 오대산을 가다



김대열 / 대관령기상대



①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국보 221호)  
② 상원사 중창권선문(국보 292호)

신문, 방송에서 봄꽃 개화시기에 대한 뉴스가 자주 보도될 즈음, 3월 13일 대관령에 눈이 내렸다. 당초 예상보다 적은 적설을 기록하며 새색시처럼 예쁘게 내린 눈은 온 세상을 다시 한 번 하얗게 바꾸어 놓았다. 비상근무 대기를 하다 문득, 이번 겨울에 마지막으로 눈꽃을 볼 수 있는 기회겠다는 생각에 주말 오대산 산행을 계획하게 됐다.

## 연심 같은 산, 오대산

오대산은 평창군, 홍천군, 강릉시에 걸쳐있는 설악산과 더불어 태백산맥에 속하는 고산준령으로 주봉인 비로봉을 중심으로 호령봉, 상왕봉, 두로봉, 동대산 등의 고봉들이 있다. 가운데 있는 중대사자암을 중심으로 북대미륵암, 남대지장암, 동대관음암, 서대수정암이 오목하게 원을 그리고 있는데, 이 형상이 다섯 개의 연꽃잎에 싸여 연심 같은 산세라 해서 오대산

이라 부른다. 오대산에는 각종 희귀 동·식물들이 분포하고 있는데, 특히 월정사로부터 상원사 적멸보궁을 잇는 10km의 계곡은 500년 된 전나무들과 고산식물, 잡목들로 우거져 수려하고 웅장한 계곡미로 유명하다. 또한 사찰과 문화재가 많아 1975년 2월, 1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 비로봉, 상왕봉... 걸출한 고봉들의 설경

나름 등산에 취미를 붙이려했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자주 가지 못했던 나는 상원사를 출발해 비로봉, 상왕봉을 거쳐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약 5시간의 상왕봉코스를 선택하였다. 나처럼 주말을 이용해 마지막 겨울산을 보려는 듯 입구부터 차량과 인파로 북적였다. 상원사 경내에 이르니, 제일 먼저 완형으로 남아있는 통일신라시대 범종 3구 중 하나인 국보 36호 상원사동종이 눈에 들어온다. 불행히도 지금은 균열이 있다 하여 투명아크릴로 보호막을 설치한 상태였다. 오대산에는 국보가 네 점이나 있는데 그 중 상원사에 세 점이 있다. 또 다른 국보로 국내 유일 동자상인 국보 221호 목조문수동자좌상과 세조와 상원사 및 신미와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국보 292호 중창권선문이 있다.

스님의 독경 소리와 풍경 소리가 은은한 상원사를 지나자 곧바로 급경사가 시작된다. 쌓인 눈이 다져져서 미







① 눈꽃  
② 월정사 팔각9층석탑(국보 48호)  
③ 석등  
④ 사자암



끄럽기도 하고, 내려오는 등산객과의 엇갈림도 쉽지가 않다. 약 30분 정도 숲길을 따라 오르니 중대사자암이 가파른 사면에 위치해 있다. 측면에서 보면 다섯 개의 전각이 마치 한 몸처럼 계단식으로 이어져 있는데, 맨 위는 비로자나불을 모신 비로전이 있고 그 아래로 방사와 공양간이 있다.

중대사자암을 지나 한참을 오르니 적멸보궁 갈림길이다. 적멸보궁이라 함은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전각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양산 통도사, 설악산 봉정암, 태백산 정암사, 사자산 범홍사와 함께 5대 보궁에 속한다. 특이한 것은 불상과 탱화를 봉안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법당 뒤편 사리탑에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적멸보궁을 뒤로하고 드디어 비로봉을 향해 출발한다. 그런데 오르막이 참 길기도 하다. 해발 1,563m라서 그런지 역시 만만치가 않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허벅지도 빠근한 것이 왜 ‘빌어먹을 봉’이라고 불리는지 알 수 있었다. 쉬는 중간 중간 곤줄박이인지 박새인지 등산객들이 뿌려둔 음식을 먹느라 부리나케 들락거린다. 사람에게 대한 경계가 없어 빈손만 내밀어도 손바닥 위에 내려앉아 먹이를 달라고 재촉한다.

이렇게 몇 번을 쉬며 드디어 오대산 주봉인 비로봉에 올랐다. 우리나라 유명산 정상은 비로봉이 유난히 많다. 소백산, 치악산, 팔공산, 북한산, 금강산, 묘향산 등... 비로(毘廬)는 불교에서 높다는 뜻으로 두루 비치는 부처님 몸의 빛을 의미하는데, 그 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라는 고유명사가 되었다. 비로봉 정상에서 사방으로 탁 트인 경치를 감상하다 습관적으

로 시정(지표면에서 정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목표를 식별할 수 있는 최대거리)이 얼마정도일까 잠깐 생각난 나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다시금 절경 삼매경에 빠져들었다. 산맥의 주름이 마치 생명을 가진 핏줄 같았는데, 이날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여서 동해바다도 볼 수 있었다.

역시 등산의 묘미는 산 정상에서 느끼는 뭔가 모를 희열이다. 그것은 가파른 경사를 힘들게 올라온 성취감과 자연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에 대한 동경일 것이다. 나는 인증샷을 찍고 다시 상왕봉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중간에 준비해온 점심을 먹고, 사람 눈높이에 있지 않고 목까지 묻혀있는 이정표, 모진 풍파에 시달린 각종 고사목들을 보며 걷고 또 걸어 상왕봉, 두로령, 북대사를 지나 출발지에 도착하였다. 차를 타고 내려오며 월정사에 들러 고려전기 대표석탑이자 다각다층석탑의 대표작인 국보 48호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을 보며 산행을 마무리하였다.

### 일상의 묵은 때를 버리고...

짧다면 짧은 12km, 5시간의 산행을 통해 언제나 그러하듯 정상을 향하는 숲길에선 어머니의 가슴에 안기는 모정을, 산 정상에 올라서면 희망과 용기의 파란 하늘을 등에 진 부정을 느꼈다. 자연의 변화무쌍함이 그동안 수없는 사람들의 발자국이 남긴 일상의 찌꺼기들을 말끔히 덮고 은빛세상을 만든 것처럼, 나도 이번 산행을 통해 일상의 지치고 힘든 흔적들을 덮고 오대산의 정기를 받아 활력 넘치는 봄을 맞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 산행은 자연과 더욱 하나가 될 수 있는 비박산행을 계획해 본다.

#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스마트한 패션스타일링'



황나연 / (주)코데즈컴바인  
마케팅실 팀장

바야흐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다. 따뜻한 바람이 불고 꽃도 활짝 피니, 괜히 마음도 설렘으로 가득하게 된다. 그러다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 밝고 가벼운 봄옷으로 한껏 멋을 내고 나갔다가, 일교차 때문에 감기로 고생한 적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날씨와 상관없이 예쁘게 보이고 싶은 여자의 마음은 그래서 봄과 닮았다. 새내기 스무 살의 봄에도, 첫 회사 입사를 앞둔 어느 쌀쌀한 초봄의 날씨에도 언제나 난, 실루엣을 상실한 두꺼운 패딩이나 다운점퍼를 집어던지고 밝은 파스텔컬러의 스프링코트에 하늘거리는 플라워 스커트를 입고 나가곤 했다.

물론, 전날 밤에는 꽃샘추위가 없길 바라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일기예보를 확인해야만 했다. '내일은 좀 쌀쌀하다고 하는데, 따뜻한 옷을 입고 나갈까? 아냐, 그래도 얇지만 예쁜 화사한 옷을 입고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의 승자는 언제나 후자였다. 그래서 멋 내기 좋아하고 예쁜 옷 좋아했던 난 언제나 기침과 감기약을 달고 살아야만 했다. 그러면서도 미니스커트나 샤랄라 원피스를 포기하지 않는 날 보며, 친구들은 얼어 죽겠다며 걱정 반 야유 반으로 말하곤 했지만, 그때의 난 어떠한 곳은 날씨에도 패션을 포기하지 않는 진정한 트렌드 세터가 아니었나 싶다. ^^

요즘은 그때와 달리 참 스마트한 세상에 살고 있다.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켜고 날씨를 검색해 출근길에 우산을 챙겨야 할지, 어울리는 옷은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하루에도 몇 번씩 실시간으로 날씨확인이 가능하고, 비나 눈이 어느 지역에 얼마나 내리는지와 그 시간대까지 알 수가 있는 세상인 것이다.

봄바람 살랑살랑 맞으며 나들이를 떠나고, 주말마다 결혼식 참석이 이어지는 등 스페셜 데이가 많은 봄에는 겨우내 입었던 패딩과 어두운 컬러의 구스다운 점퍼를 벗고, 산뜻하고 상큼한 옷으로 화사해지길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얇은 재킷을 꺼내



스타일을 살리자니, 아침저녁의 찬바람이 못내 걸리고 만다. 그렇다면 어떤 옷을 입어야 좋을 까?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이 찾는 아이템인 가디건이 제격이다. 가디건은 입고 벗기 편한 실용적인 아이템이기에 얇은 폴오버 니트나 티셔츠 위에 겹쳐만 입어도, 스타일은 살리고 보온성도 살릴 수 있는 스마트한 아이템이 된다. 또한 따뜻한 날씨에는 티셔츠나 셔츠를 입고 컬러풀한 가디건을 어깨 위에 살짝 걸쳐만 놓아도, 센스 있는 봄날의 피크닉 룩으로 연출할 수 있다.

바람 부는 날 분위기 있게 걸치는 가을 대표 아이템인 트렌치코트는 이제 계절을 불문하고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니트 등 다양한 소재와 다채로운 컬러로 이미 봄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인 아이템이 됐다. 이 트렌치코트로 비바람을 막아주는 가벼운 스타일링을 연출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여기에 화려한 스카프나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면 한층 더 멋스러워질 수 있다.

KBS <1박 2일> 등의 야생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퇴근 이후의 여가시간이 중요시되면서 야상점퍼의 인기 또한 높아졌다. 밀리터리 점퍼로 통하는 야상점퍼는 날씨에 따라 간편하게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스마트한 아이템이다. 탈부착이 가능한 후드스타일, 내피가 달린 점퍼, 소매를 떼고 입을 수 있는 스타일과 쌀쌀한 봄바람으로부터 목을 여밀 수 있는 하이넥스타일 등 의류브랜드마다 트렌디한 스타일과 다채로운 컬러로 신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아웃도어 브랜드의 대표 아이템인 바람막이 점퍼나 스웨터 재킷처럼 얇지만 보온성이 강한 옷도 꽃샘추위에 많이 찾는 아이템들 중 하나다. 봄을 맞아 산행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머스트 해브 아이템인 바람막이 점퍼는 기온변화가 많은 산에서는 바람만 막아도 추위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어서 방수, 방풍 기능이 뛰어난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이 인기가 많다.

가볍고 얇은 소재로 제작된 바람막이 점퍼는 사계절 내내 활용 가능하며, 생활 방수 기능과 통기성이 우수해 번덕스런 날씨에 입기 좋은 아이템이다. 최근에는 단순히 비와 바람을 막아주는 기능 외에도 감각적인 컬러와 패턴으로 초보 패션피플도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스타일리시한 룩의 완성을 도와준다.

올 봄에는 눈길을 확 끄는 비비드컬러 등의 컬러풀한 색이 유행하고, 봄을 상징하는 화사한 플라워 프린트가 더욱 과감하고 화려해진다고 하니, 쇼핑 시 염두에 두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따뜻한 봄날, 자신에게 어울리는 컬러를 선택해 과감한 코디를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 화사한 봄을 물씬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기상청과 함께한 시간들



김계연 / 연합뉴스 기자

기상청은 기자의 입장에서 특별한 곳이다. 가깝게는 내일, 멀게는 두세 달 후에 일어날 일을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기사를 쓸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출입처이기 때문이다.

신문을 펼쳐보면 대부분 어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하는 얘기가 대부분이다. 기자들은 역사에 기록을 남기는 것도 언론의 사명이라면서 지나간 일의 사소한 팩트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될 수 있으면 가장 최근에 벌어진 일, 앞으로 생길 일에 대해 기사를 쓰고 싶어 하는 습성이 있다. 그런 의욕이 앞서다보니 흔히 말하는 추측성 보도도 나온다. 하지만 주 임무가 앞을 내다보는 일인 기상청에 출입하다 보면 그럴 일이 별로 없다. 굳이 말하자면 근거가 충분한 '예측성' 보도라고 할까?

기자들은 별일 아니어도 엄청 중요한 것처럼 적당히 부풀려서 쓰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알고 보면 기사를 읽는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도 참 많다. 예를 들어, 필자 같은 경우에 공무원이 아니라서 그런지 정부조직법이 필자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유명한 벤처 사업가이자 대학 교수인 누군가가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내 생활이 별로 달라질 것 같지도 않다. 반면 관심사나 이해관계를 넘어서 매일, 세상 모든 사람의 피부에 와 닿는 날씨만큼 중요한 주제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기상청을 담당하기 전에 4년 동안 각종 사건사고 기사를 썼다. 주로 경찰서나 검찰 청사를 드나들었는데 썩 기분 좋은 곳은 아니다. 때리고 찌르고 속이고

도망치는 온갖 나쁜 사람들이 다 모여든다. 돈과 권력과 인간에 대한 욕심, 나만 잘되면 남이야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이기심은 대부분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앞뒤 가리지 않고 오로지 욕심과 이기심에만 충실하다 보니 나쁜 사람이 되는 것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기상청과 담당 기자들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자연의 위대함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지러운 만큼 복잡한 세상에서 자연 앞에 조금이라도 겸손해진다면 세상이 더 좋아질 것 같다. 굳이 재난영화를 볼 필요도 없이 인간의 사사로운 욕망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보여주는 기상재해가 세계 곳곳에서 일 년 내내 일어난다. 자연에 사람이 손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기상청의 주요 업무는 예보나 통보가 아니라 기온과 강수와 일사를 조절하고 태풍이나 황사의 진로를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유도하는 일이 됐을 것이다. 어쨌거나 그런 사명감 비슷한 걸 가지고 2011년 11월, 초겨울에 기상청 출입을 시작했다. 사계절을 겨우 한 바퀴 돌았으니 이제 기상에 대해 감이 조금 오는 정도다. 그런데 원래 일복이 많아서 그런지 그 짧다면 짧은 기간 동안 흑한에 폭염, 태풍까지 하나같이 강력하게 찾아왔다.

덕분에 '○○년 만의'로 시작하는 기사를 참 많이 썼다. 이런 기록을 애써 찾는 것도 기자들의 습성 가운데 하나다. 제목을 뽑기도 좋고, 구체적인 기온 몇도, 강수량 몇 미리보다 직관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기사에는 '또 ○○년 만이냐, 지겹다'라는 식의 반응이 많다. 기자들의 습성을 간파한 독

자들이 야유를 보내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안타깝다. 극한기상은 자연이 인간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인데 이걸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기록적인' 날은 앞으로 더 자주 있을 테니 말이다.

독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일종의 내성이 생긴다. 장기적인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이런 내성이 훨씬 심하다. 당장 못 견디게 덥거나 추운 것도 아니고 기후변화 시나리오라고 해봐야 내가 살아있을 때 벌어질 법한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이제 다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는 비아냥이 나왔을까. 당장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나중에 스키를 못 타게 된다거나 이런저런 동식물이 멸종한다는 식의 기사도 써 봤지만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이걸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

작년에 찾아온 기상현상 중에 자연이 두려워할 만한 존재라는 걸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준 것은 다섯 개의 태풍이 아닌가 싶다. 바람에 등이 때밀려 몸을 가누지 못할 상황이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으니까. 태풍 앞에선 세상 사람 모두가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 하지만 막상 태풍이 닥쳤을 땐 중심기압이나 풍속 같은 팩트에만 집착했지, 실제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얼마큼 주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지 못한 것 같다. 경험이 부족한 탓인지는 몰라도 일하기 쉽게 뭔가 딱 떨어지는 사실만 찾은 것은 아닌지 새삼 반성하게 된다.

개인적인 바람을 얘기하자면 엄청나게 강한 태풍이나 폭우가 올 때, 지금처럼 건조하고 객관적인 표현과 함께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도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기상업무를 잘 모르는 보통 사람들은 초속 40m의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시간당 30mm의 비가 얼마큼 쉰 건지 쉽게 알지 못한다. 태풍이 올 때마다 기자들이 항상 옛날 태풍과 비교하고 바람이 역대 몇 위인지 세어보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일본 기상청은 최근 50년에 한 번 오는 폭우가 내릴 때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을 정도로 많은 비'라고 하거나, 쓰나미 경보를 할 때 '동일본 대지진급 쓰나미가 몰려온다'는 표현을 쓰기로 했다고 한다. 올 여름에는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같은 표현은 어떨까? 그러면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기상청이 될 것 같다.

### <태풍 산바> 50년만에 한해 태풍 4개 상륙



<태풍 산바> '비림막에 무산'  
(서울=연합뉴스) 연평균 기온 =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전국에 폭우를 동반한 강풍이 불고 있다. 17일 서울 용인문 앞길 인근 도로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2012.9.17 sabb@yna.co.kr

물론 5번째 우리나라에 영향-북태평양고기압 세력 약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제16호 태풍 산바(SANBA)가 17일 오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하면서 올해 물이 네 번째로 한반도 앞을 밟은 태풍으로 기록됐다.  
한 해 4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한 것은 1962년 이래 50년 만이다.  
지난 7월 카논(KHANUNO)이 수도권을 관통하면서 물이 물이 한반도에 처음 상륙한 태풍이 됐다. 카논은 1995년 제니스(JANIS) 이후 서울에 가장 근접한 태풍으로도 알려졌다.

### 9월 지구온도 역대 최고...올겨울 혹한 예고(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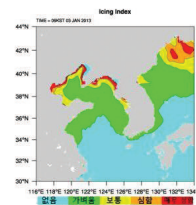


북극해 얼음면적 사상 최소 기록  
(AP/WIDE=연합뉴스) 북극해를 감고 있는 얼음면적이 사상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립해양조사국(NOAA)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현재 북극해 얼음이 340만㎢로 관측되며 이는 올긴 최소치인 2007년 기록보다도 19%나 감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단군 및 방글라데시(NASA)의 위성관측 자료로 기록해 위도가 북반구 적선 14도 현재 북극해를 감고 있는 얼음이다. 노년선 인은 북극해 얼음면적을 기록하기 시작한 1979년부터 2009년까지의 평균을 표시한 것이다.

북극해빙 많이 녹아 찬공기 남하 가능성  
기상청 '올겨울 추운 날 많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지난날 지구의 평균 온도가 만물 관측 기록이 시작된 1880년 이래 가장 높았던 것으로 분석했다.

북극 해빙(海氷)은 역대 가장 많이 녹아내려 올겨울 북반구에 혹독한 추위가 닥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 얼어붙는 바닷물에 선박 전복 '차빙주의보'



대부분 해역 발생 가능성-서해안 일부 '매우 위험'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전국에 강추위가 연일 계속되면서 선박에 바닷물이 얼어붙는 차빙(凍氷·icing)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바닷물이 선체에 두껍게 얼면 약한 마도에도 배가 위장할 위험이 있어 항해에 나설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차빙은 겨울철 파랑에 의해 몰려온 바닷물이 선체 표면에 순간적으로 얼어붙으면서 발생한다.

겨울 그트러리어에서의 작별

## 故 신임철 연구관에 대한 회고



김영신 / 지진관리관

춥고 지루한 겨울이 걷히고 오랜만에 소풍가기 좋았던 3월의 어느 날.  
그는 금방 돌아올 것처럼 잠시 다녀온다던 그 곳에서 길을 잃었는지 홀쩍 하늘로 떠나버렸다.  
아직도 그가 마지막으로 근무하던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센터 책상 위에는 볼펜과 책, 서류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있고, 그가 거처하던 관사는 급한 부름을 받고 후다닥 나간 것처럼 이불은 물론 그의 생활 용품들이 이곳저곳에 흩어진 채 주인이 언제 오나 기다린다고 한다. 그도 떠나면서 곧 돌아오리라 여겼던 것이다. 우리들처럼.

돌이켜 보면, 그를 처음 만났던 2008년은 내게 힐링이 필요하던 때였다. 지진 관련 핵심 업무를 담당하다, 새로운 변화를 위해 자료관리서비스팀장으로 보직을 옮기게 된 것이다. 의욕과 흥미와는 달리 익숙하지 않은 일의 연속에 당황하던 차, 그 곳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미국에서 고(古)기후를 연구한 지질학 박사였다. 그를 지도했던 미국 교수에게 고기후 박사를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 '가까이에 신임철 박사가 있는데 왜 어려운 걸음을 여기까지 했느냐'는 일화가 있을 만큼 인정받는 학자였다.

그곳에서 그와 함께한 시간들은 단 10개월에 불과했지만, 우리는 그 시간들을 매우 의미 있게 보냈다. 국가기후자료센터의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체계의 ISO 인증에 관한 것 등, 총론에서만 머물렀던 기상정보의 자원화에 대한 작업들을 수면 위로 떠올려 구체화 및 현실화시켰다.

또한 당시는 '국제관계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정책적 효과가 있을까'를 문제의식으로, 기후변화협약에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토론이 활발한 때였다. 나는 그와 함께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방안에 관한 정책 제언』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우리나라가 감축시켜야 할 온실가스의 총량을 확정하고 산업부문별 감축량의 할당을 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정책을 제공하였고, 이 공로는 KDI로부터 사례를 받기도 하였다.

그를 만난 것은 내게 큰 행운이었다. 그와 내가 닮은 점은 이름 석 자중 '신' 한 글자뿐일 정도로, 전공분야도 다르고 성장해온 환경 또한 달랐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다름을 알기 위해 마음을 더 열게 되면서 스스로의 부족한 면도 깨닫게 됐고, 서로의 강점을 공유하면 상당한 파워를 가질 수 있음도 알게 됐다.

우리의 이런 관계는 자료관리서비스팀을 떠난 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됐다. 필자가 기상청에서 지진과 기상 업무의 접점을 찾는 것에 대해 고민하자, 2012년 12월 『지진포커스』에 ‘화산활동과 기후변화’란 주제의 특별기고를 통해 기상과 지진의 융합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하였다.

그의 빛나는 활동은 학문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필자가 신앙인이 되고자 머리로 노력하는 신자라면, 그는 신앙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면서 남을 먼저 배려하는 진정한 신앙인이었다. 다음은 하늘로 돌아가기 한 달 전, 필자와 주고받은 SNS 문자이다.



“연구관님! 잘 사시지요? 그동안 북한 핵실험 대응으로 바쁘셨으나 이제 한시름 놓으셨습니까.” (2.19)

“진짜 바쁘신 모양이네요! 주말 잘 보내세요!” (2.23)

“제가 지난 주(2.15) 병원에 입원하고 2일에 퇴원했습니다.

몸에 통증이 있어서 입원했었는데 다음 주에는 병기를 내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그런 일이 있으셨네요. 병기라니 조금은 신경 쓰이네요. 아무튼 하늘이 도와주어야 하는데...”

“네, 기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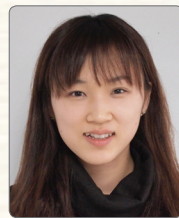
너무 평범한 일상 속에 있는 것처럼 꼬박 꼬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모티콘 마저도 남을 배려하는 표현들이 자연스러워, 그렇게 빨리 우리 곁을 떠날 줄은 미처 알지 못했다. 언제라도 그를 볼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그가 떠난 3월 4일에 병문안을 계획했다가, 정말 우연히 이틀 전에 그를 방문하게 되었다. 그와 잠시 눈 마주치며 웃음을 나눌 때에도, 차마 마지막이란 생각이 들 수는 없었다.

그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멘토이자 멘티였지만, 그가 내게 주고 싶어 했던 것이 더 많았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는 마치 나를 위하여 기후와 지질학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은, 진정한 선비이자 신앙인이었다. 고인의 장례미사에서 신부님은 ‘이 세상에서 겪을 고통을 모두 겪어, 하늘에서 더 큰 쓰임을 위해 부르신 것 같다’고 하셨지만, 그와의 이별을 준비하지 못한 남은 이들은 망연히 그가 떠난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왜 그리 바빠 떠나가야만 했을까. 그곳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준비를 못한 이승 사람들의 아쉬움을 알고나 있는 걸까. 화장장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모습을 보고 오열하던 부인의 모습을 보거나 한 걸까. 무정한 사람.

살아있는 우리가 이 상황을 안타까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 지식 나누기 ÷ 과학 더하기 + 꿈 곱하기 ×



조혜진 / 추풍령기상대

## 소외계층을 바라보기 시작하다

몇 년 전만해도 기부라고 하면 사회적 약자에게 단순히 물질적 또는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것만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제는 기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떠오르고 있다. 바로 재능기부! 재능기부란 단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개인의 이익이나 기술개발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고, 이를 활용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기상청은 오래전부터 전국 각지 기상관서를 통해 도서·벽지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 위주의 생활 과학교실을 운영해왔다. 연예인들만 재능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상기후교실 또한 재능기부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추풍령기상대 역시 매년 벽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상기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학교를 위주로 했다면, 올해는 조금 더 시야를 넓혀 주위의 소외된 이웃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 지역아동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아동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지역사회 내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 중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그리고 편부모가정 아동 등 소외계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보통 2~30명 내외의 아이들이 이곳에 모여 방과 후 시간을 보내고 있다.

대학시절,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친구를 보며 함께하고 싶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같이 하지 못했던 게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다. 그래서 이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조금이나마 그 아쉬움이 씻기는 듯했다.

## 꿈과 희망을 키우는 시간

지역아동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연락을 했을 때, 다행히 모두들 우리의 방문을 대환영해주셨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유치원생부터 중학생까지 연령층도 너무나 다르고, 영상수업을 할 빔 프로젝트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재밌게 수업을 할 수 있을까? 또 얼굴도 피부색도 조금씩은 다른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을 나도 모르게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지는 않을까 하는 여러 걱정들이 앞섰다.







그러나 수업을 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문을 열고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 모든 걱정은 다 날아갔다. 조금은 다른 얼굴의 아이이지만, 나를 보고 있는 그 반짝이는 눈은 모두가 같았기 때문이다. 내 안에 잠재되어있던 아이들에 대한 편견이 부끄럽게만 느껴진 순간이었다.

### 우리를 해맑게 맞아주는 아이들

수업을 할 때도 적극적으로 호응해주는 아이들의 모습에 꿈과 희망을 주려갔다가 오히려 내가 더 많은 에너지를 받고 온 느낌이었다. 연령층의 폭이 넓어 걱정을 했던 것은 맞춤형 학습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 한 선생님은 저학년과 유치원생을 담당, 한 선생님은 고학년과 중학생을 담당하여 다른 형태의 수업과 체험학습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빔 프로젝트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한 자료가 있었기에 워크북을 이용한 재밌고도 유익한 수업을 할 수 있었다.

만들기 키트를 완성하고 좋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번졌다. 비록 처음 만났지만 잘 따르는 아이들을 보니, 1시간 반이 너무 짧게만 느껴졌다.

“매일매일 기상기후교실 했으면 좋겠어요~”  
 “기상청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에 기상대 놀러가도 되나요?”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과 즐거워하던 목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듯하다.

### 내게 돌아오는 행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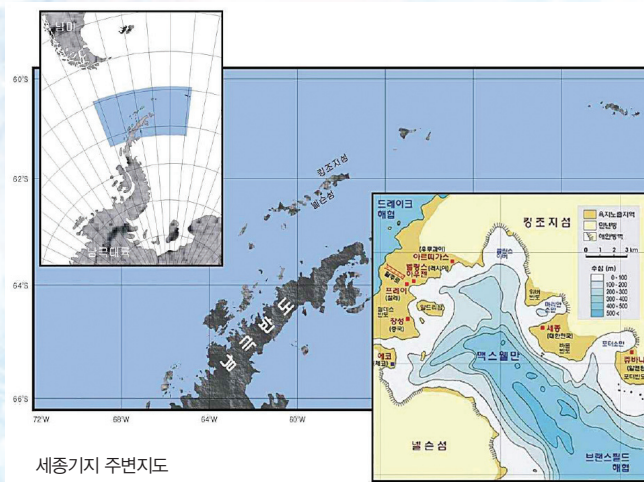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지식을 나눔으로써 기상과학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꿈과 희망을 키워줄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 큰 기쁨이었다. 수업을 하는 것이 힘들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돌아오는 행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개인이었다면 쉽게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기상인’이라는 이름하에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한 나의 직업에 감사하게 되었다.

혹자는 이 짧은 시간이 아이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말하겠지만, 누군가의 한마디로 인생이 변할 수 있고, 누군가의 한마디로 평생의 꿈을 꾸게 되지는가. 희망마저 무너지고 마음마저 소외되었을지도 모를 아이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꿈과 희망을 키우는 시간이 되었길 기도해 본다.

# 남극, 비문명 세계에서 살아남기



강민협 / 남극세종과학기지



남극은 비문명 세계이다. 어느 것 하나 풍족한 것이 없으며, 오로지 정해진 공간 안에서 특정인들 사이의 교류만이 허용되는 곳. 경제활동이 없으며 거시적인 사회활동이 없는 곳. 문화해택이 없을뿐더러 의식주를 걱정해야 하는 곳. 몸이 아파도 최소한의 의료행위만 가능한 곳. 그곳이 바로 남극이다.

그래도 엄연히 18명의 대원들이 모여서 생활하고 있고, 주변에는 우리와 같은 목적으로 운영

되는 외국기지들이 있기에 그 테두리 안에서 나름대로 소통하고, 정해진 규칙을 지키고 있다. 소규모의 문명세계가 좁은 섬 안에 꾸려져 있는 셈이다.

남위 62°13', 서경 58°47'에 위치한 남극세종과학기지는 남극대륙에서 북쪽으로 뻗은 남극반도 북단 남셰틀랜드제도(South Shetland Islands) 가운데 가장 큰 섬인 킹조지섬(King George Island)에 있다. 좀 더 정확한 위치는 킹조지섬 남쪽 맥스웰만(Maxwell Bay)에 연결된 마리안소만(Marian Cove) 남쪽 바튼반도(Barton Peninsula)의 연안이다.

세종기지는 기상학적으로 고위도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중위도 편서풍과 극동풍이 만나 극전선(Polar Front)이 형성되어 빈번한 기압골의 통과로 기상의 변화가 심한 곳이다. 또한 기압이 낮고 흐린 날이 많으며 바람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가장 큰 기상학적 현상으로 블리자드를 들 수 있다.

블리자드는 초속 14m 이상의 바람을 동반한 눈보라로서 시정이 150m 이하일 때를 의미한다.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지만, 여름철에도 간헐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올해 1월에는 강한 블리자드가 두 번이나 나타났으며, 기지가 설립된 이후 최대순간풍속 극값 최고치를 두 번이나 갱신하였다.



① 코끼리해표 ② 턱끈펭귄 ③ 칠레공군기지

남극 세종과학기지는 1988년 2월에 설립된 이후 26년째 운영돼 오고 있다. 해마다 연구원 구성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1차부터 26차 현재까지 기상대원은 항상 포함된다. 변화무쌍한 남극의 날씨는 기상대원을 항상 긴장하게 만든다. 특히 여름기간동안에는 야외와 해상, 수중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아침마다 예보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벌써 올여름 두 번이나 발생한 블리자드와 두 번의 극값 갱신으로 앞으로 심상치 않은 한 해를 예상하고 있다.

남극에서 날씨만큼 힘든 것은 먹는 문제이다. 조리담당 대원은 한식, 중식, 일식까지 못하는 요리가 없다. 문제는 재료인데, 한국산 쌀과 김치는 매년 8월에 구입하기 때문에 몇 달씩 묵힌 저장식품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가끔씩 들어오는 칠레산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 중 하나이다. 식수는 눈과 바닷물을 쓰는데, 바닷물에서 소금기를 빼는 담수처리기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여기서는 식수부터 전기 통신은 물론 연구 활동까지 모든 것을 자급자족해야 한다.

남극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나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이것저것 많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외로움과 그리움이 아닐까? 사회에서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외로움, 가족과 친구, 동료들에 대한 그리움은 남극에서 몇 달만 지내보면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1년을 같이 보내는 18명의 대원 들끼리는 동료보다 가족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외국기지는 이웃사촌이라고나 할까?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기지의 대원들도 같은 감정일 것이다. 그래서 각 기지들 간에 왕래가 잦은 편이다. 벌써 수차례 외국기지에서 세종기지를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외국기지에 방문할 기회가 자주 있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외교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책임감이다.

크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좁게는 기상청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내게 주어진 일년의 기간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보내고자 매일 아침 다짐을 한다. 그것이 지금 느끼는 외로움과 그리움에 대한 최대한의 보상이 아닐까싶다.

## 기상은 내 친구! '기상 아띠' 프로그램에 참가하다



조형욱 / 조선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지난 2월, 광주지방기상청에서 주최하는 '기상 아띠' 프로그램에 조선대 지구과학교육과 3명과 전남대 해양학과 3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기상청 입사에 관심이 있던 터라 들뜬 마음으로 함께 하게 되었다. '아띠'는 순우리말로 친구를 뜻하는 단어인데,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해서 프로그램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다.

광주청을 처음 가본다는 생각에 무척 설렘. 기상청 건물은 하얗고 웅장할 것만 같았는데, 실제로 보니 붉은색 벽돌 외관에 생각보다 낮은 건물이어서 조금은 실망감이 들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6명이 모두 모이니, 유일하게 나 혼자만 남자였다. 평소 학교에서도 이런 조합은 쉽지 않은데, 왠지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만 같았다.

과장님부터 시작해 근무하는 모든 기상청 분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주셔서 기분이 좋았다. 과장님께 간단한 설명을 들은 뒤, 전진 예보관님께서 기상청에서 하는 업무와 비전, 기상청 채용정보 안내 등을 친절하게 설명해주셨다. 그 후, 우리가 평소에 기상청에 궁금하였던 점들(어떻게 시험을 준비했고, 어떤 스터디를 했는지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 보니, 내 꿈에 한발 더 다가가는 듯했다. 친절히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자세히 알려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고, 쉽게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이어서 오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다.

예보실에서는 예보를 하기 전까지 예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다. 학교에서 예보 과정에 대해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었는데, 역시 백번 듣는 것보다는 한번 보는 게 낫다는 우리 속담이 딱 들어맞았다. 이때 설명해주신 예보관님께서 오후에 갈 고창기상대에 계시는 담당 예보관님과 화상통화를 할 수 있도록 예보실 한쪽벽면의 큰 스크린을 통해 연결해주셨다. 화상통화가 무지 신기하기도 하고 큰 화면에 깜짝 놀라기도 했다. 이런 형태로 본청, 지방기상청, 기상대끼리 연락을 주고받아 더 정확한 예보가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기상청 앞 관측 장소에 있는 기상관측 기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요즘은 많이 자동화되어서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하는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기는 힘들다고 말씀하셨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직접 관측하느라 얼마나 고생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과장님과 함께 맛있는 불고기백반을 점심으로 먹은 후, 오후 일정을 시작했다. 먼저 '기상산업 바로알기'가 오후 일정의 첫 번째 주제였다. 기상산업과 관련된 직업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MBC로 가서, 기상캐스

터 김난희님을 만나보았다. 뉴스에서 보던 모습 그대로 무척이나 아름다우셨다. 평소 기상캐스터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궁금했는데, 체험해보니 신기할 따름이었다. 정말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하기 힘들 것 같았다. 체험하는 내내 떨려서 심장이 두근두근했다.

오후의 두 번째 스케줄은 표준기상관측소인 '고창기상대 견학'이었다. 이날 날씨가 엄청 추웠는데, 관측 장소는 지면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있어서 바람이 더 세차게 불어댔다. 이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고창기상대 직원 분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다. 이곳은 관측기구도 많을뿐더러 관측 장소가 무척 넓었다. 고창기상대는 기상장비 테스트와 외국 기상장비와의 비교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었다. 기상관측장비 견학을 통해 날씨 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고 기상에 관한 관심과 흥미가 증가하여 뜻 깊은 경험이 되었다.

기상청이라는 곳은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몇 년 후, 이 멋진 곳에서 일하는 나를 꿈꾸어 보았다. 꿈을 실현하기 위해 계획한대로 열심히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는다. 나도 열심히 공부하여 기상청에 입사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다. 그래서 기상청을 널리 알리고 기상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더욱 더 흥미를 부여하고 싶다.

친구 같이 친근한 기상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상 아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앞으로도 기상청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함께하고 싶다.

무게 2.7g, 지름 40mm

## 탁구공의 매력에 빠지다



김세준 / 성산기상대



① 셰이크핸드 그림 ② 펜홀더 그림

2004년 8월 23일 저녁 8시경, 우리는 다시 보기 힘든 명장면을 접할 수 있었다. 바로 아테네올림픽 탁구 결승전에서 말이다. 당시에 나는 군대 내무반에서 숨죽인 채 유승민 선수의 마지막 드라이브를 지켜보고 있었다.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5,000만의 탁구 인구를 가진 중국을 이기고 우승한 것은, 김연아 선수의 피겨 연기를 보는 것 이상의 그 무엇이 있는 듯했다. 그때의 흥분과 감동에 빠진 난, 그 후 탁구 인생을 걷기 시작했다.

군 제대 후엔 지역 탁구동호회에 가입했는데, 군대에서의 탁구와는 확연한 실력 차이가 있었다. 군대 내 1~2인자를 다투던 내가 동호회 초보자로 입문한 것이다. 초등학생에게 지고, 80세를 훌쩍 넘기신 어르신께 지고... 정말 굴욕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점이 탁구의 매력이 아닌가? 대학 복학 후에는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탁구를 즐겼다. 하나의 업적이라면 생활관 탁구대회에서 우승한 정도? 후훗.

서울 성동구 생활 탁구동호회에서 차기 회장을 노리던 나는 현재 서귀포 성산을 성산동호회에 가입한 상태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쉬고 있기는 하지만, 그때 만들어진 인연으로 동호회 회원 분들과 자주 연락하며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무게 2.7g, 지름 40mm의 공으로 게임하는 탁구는 1880년경 잉글랜드의 귀족들이 식당에서 샴페인 뚜껑을 공으로, 그리고 잎담배 상자의 뚜껑을 라켓으로 즐겼던 것을 기원으로 보고 있다. 핑퐁(Ping Pong)이라는 말은 과거 탁구용품이 발달하지 않았을 시절, 라켓으로 때릴 때 '핑' 탁구대에 부딪칠 때 '퐁' 소리가 났기 때문에 나온 말인데, 1926년 국제탁구연맹이 창립되면서 테이블테니스(Table Tennis)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라켓은 잡는 방식이 악수를 하는 듯한 손의 모양으로 셰이크핸드 라켓, 펜을 잡는 듯한 모양의 펜홀더 라켓이 있다. 세계적인 추세는 어떠한 위치에서든지 공격과 수비가 수월한 셰이크핸드 라켓을 선호하고, 중국에서는 펜홀더 라켓에 치는 방식을 달리한 이면타법으로 중국식 펜홀더 라켓이 대세이다. 김택수 선수와 유승민 선수가 사용하는 일본식 펜홀더 라켓은 많은 활동량을 요구하고 백쪽으로의 공격과 수비의 어려움이 있어 점차 사용자

가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일본식 펜홀더 라켓 유저이다. 여러 단점이 있음에도 나에게 추억과 향수를 가져다주며, 또 강력한 한방의 드라이브는 모든 단점을 삼킬만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게임방법은 서브 2개를 번갈아가면서 넣고, 11점을 선점하면 그 세트를 승리하게 된다. 물론 듀스라면 2점차가 벌어질 때까지 경기는 계속된다. 서브는 손바닥을 편 상태에서 공을 보이게 올려놓고 테이블 아래로 상대방이 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내릴 수 없으며, 수직으로 16cm 이상 띄운 후 라켓을 휘두르면 된다. 휘두를 때에는 공 타격 시 다른 손으로 공을 가려서는 안 된다. 생활탁구에서 가장 지켜지지 않는 규칙으로 생각보다 상당히 까다롭다. 하지만 즐거운 탁구를 위해서 꼭 지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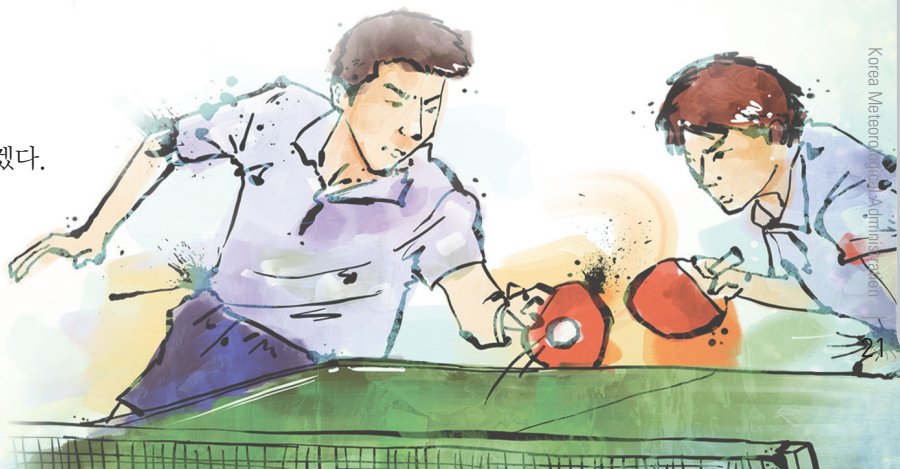
서브 시에 네트를 맞고 상대 코트로 넘어가는 경우 ‘네트’라고 하는데 네트의 수는 제한이 없고 득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서브가 모서리에 맞을 때가 있는데 이는 ‘서브 에찌’로 득점이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공을 띄우고 라켓을 휘두르지 않았다고 다시 서브를 넣겠다고 하는 친구를 간혹 보는데, 이는 서브 실패가 되기에 상대방의 득점이 된다. 서브는 공을 띄우는 동작을 그 시작으로 하기에, 공을 띄웠으면 상대방의 코트로 꼭 넘겨야 한다.

다음으로 탁구 매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상대방의 실수에 크게 웃지 않고 나의 에찌나 네트에 맞는 행운으로 득점했을 때는 가볍게 ‘죄송합니다’라고 인사하거나 제스처를 취해주면 좋다. 탁구 공은 흰색이므로, 경기 시에는 상의를 흰색이 아닌 색깔이 들어간 옷을 입어주는 것도 좋다. 경기 중 큰 소리를 내서 상대방을 기죽이는 건 지양해야 한다. 게임의 시작과 끝에 악수를 하며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것도 잊지 말자.

봄엔 불청객인 황사가 찾아오기 마련이다. 이럴 땐 실외보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인 탁구가 제격이다. 먼지 묻은 탁구대를 깔끔하게 닦아, 가벼운 게임으로 기분 좋은 땀을 흘려보는 건 어떨까? 특히 올해 다이어트를 결심한 분이라면 더욱 탁구를 강력 추천한다. 게임을 할 때와 더불어 공을 주우러 다닐 때도 엄청난 칼로리 소모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오는 여름엔 비키니 수영복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김주임~ 탁구 한 게임 할까?”

앞으로 내게 이런 인사를 건네준다면 좋겠다.  
물론 언제나 대환영이니까 말이다.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 외국의 기상인들이 본 한국과 KMA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운영과




미국, 유럽, 일본, 인도, 러시아, 중국에 이어 2010년 세계 7번째로 기상위성을 보유하게 된 것에 이어, 올해엔 세계기상기구 고위직 선출의 쾌거를 이루었다. 이렇듯 명실상부 기상선진국으로서 위상을 갖춘 한국 기상청은 매년 기후, 위성, 정보통신 등 다양한 기상 분야에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ODA)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레이더 분야에서는 기상레이더센터가 지난 3월에 2주 동안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도국 기상청 직원을 초청하여 '레이더 운영 및 자료 활용과정'을 운영하였다. 러시아, 홍콩, 몽골, 라오스, 우간다, 케냐 등 17개국의 레이더 담당자 19명을 대상으로 기상레이더 관측과 운영 기술, 그리고 기상레이더 자료 생산과 분석 및 응용 개발 기술 등 기상레이더 40년 운영의 노하우를 전수하였다.

연수생들은 국가기상센터,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등 기상업무 현장을 견학하고, 난타 공연 관람, 김치 담그기 등 한국문화 체험의 시간도 가졌다. 이번 교육의 효과는 개도국의 위험기상 대응능력 향상으로 나타나겠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과연 교육생들은 한국에 대해 어떤 인상을 받았을까?

간단한 설문조사로 교육생들이 방한 전 한국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아보았다. 상당수가 '첨단 기술, 빠른 경제성장, 선진국'이라고 답했는데, 그중 몇 가지 조금 눈에 띄는 답변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 가난하고 무질서한 나라
- 삼성전자의 나라
- 
- 패션의 나라
- 저렴하고 질 좋은 화장품, 모든 음식이 맵다
- 사람들이 다들 날씬하고 예쁘고 김치를 좋아한다

다행히 이런 선입견들은 이들이 한국에 머문 2주 사이에 많은 변화를 겪은 모양이다. '가난하고 무질서한 나라'라고 답변했던 교육생의 인식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는데, '직접 와보니 금융, 기반시설 등 모든 면에서 매우 훌륭하다'라고 하였다. 한국





에는 삼성전자만 있는 줄 알았던 교육생도 '삼성이 다가 아니더라'라며, LG와 현대 등 다른 기업들의 숨통을 틔우는 말을 남겼다. 쿨하게 태극마크 하나 그려 넣었던 교육생은 안타깝게도 가운데의 줄 방향이 반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떠났다.



또한 '모든 음식이 맵다'라는 선입견은 사라진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은 다들 날씬하고 예쁜 패셔니스타'라는 좋은 이미지는 부디 깨지지 않았길 바란다.

그렇다면 교육생들이 바라본 한국기상청의 모습은 어땠을까? 'KMA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항목에 대한 답변 중 가장 많이 등장한 표현은 'well-organized'와 'top technology'였다.

- 기상을 위한 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며 항상 최선을 다하는 전문가들로 가득한 곳
- 기상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있어서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곳
- 이웃 국가들에게 기상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여 그들의 운영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곳
- '우리나라도 언젠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생기게 하는 곳
-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도 기여하는 곳

이것이 모두 교육생들이 바라본 한국기상청의 모습이었다. 그러니 이곳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보다 더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끝으로 말레이시아 교육생이 설문지에 적어준 멋진 문장(조금 안 어울리는 내용이기도 하지만)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The trouble with weather forecasting is that it's right too often for us to ignore it and wrong too often for us to rely on it."*

*"일기예보의 문제점은, 무시하기에는 너무 잘 맞고 의존하기에는 너무 자주 빗나간다는 점이다."*

# 국립기상연구소의 성공적인 제주 이전을 바라며...



조형준 / 국립기상연구소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



“입사하게 되면, 내년엔 제주도에서 근무해야할 텐데 가능하십니까?”  
면접을 보면서 받았던 첫 질문이었다. 제주도가 고향이고 입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나는 서슴없이 “네!”라고 대답했다. 이렇듯 국립기상연구소의 제주도  
이전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언제, 어떻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이었다.

남재철 소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국립기상연구소의 현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야기를 듣다보니 제주 이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이후 T/F가 구성되었는데, 제주 출신이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내가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많이 어리둥절했다. 하지만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나가면서 하나씩  
활동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기 시작했다. 또한 준비가 많이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단원들과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모아 진행하기로 했다. 많은 아이디어가 모여 어느 정도 틀이  
잡히면서 기초 작업이 마무리되었다.

현지 사정을 파악하고 이전과 관련된 기관(제주도청, 제주지방기상청, 국토해양부 인재개발원 등)들과의  
업무협의를 위해 제주도로 떠났다. 막상 제주도에 도착하니 따뜻한 초봄 날씨와 이국적인 분위기  
때문에 관광하러 온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내 현실로 다시 돌아와서 현황을  
파악하고 제주 이전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알아보니 많은 어려움이 파악됐다. 이전 사업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 것이다.

T/F 활동을 하기 전엔, 제주 이전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짐 싸서 내려가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다. 하지만 200여명의 직원을 둔 기관이 옮긴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는 것과 기관에  
맞는 체계적인 준비 역시 필요함을 알게 됐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이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준비하였다.



제주도 출장 후, 중간보고회가 개최되었다. 아직은 미흡한 상태였지만 지금껏 준비된 사항에 대해 보고한 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남은 기간 동안의 진행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이로써 우리 활동은 후반부로 접어들게 되었다. 제주 이전뿐만 아니라 연구소 조직발전과 비전제시, 그리고 이상적인 연구소의 미래상을 그리는 작업도 진행되었다. 본연의 일을 잠시 잊고 오직 조직발전에 대해서만 밤낮으로 고민하였다. 또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오가며 연구소의 미래를 밝고 진취적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4주간의 시간이 앞으로 먼 미래까지의 연구소를 그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됐지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금씩 진행되어갔고 마침내 보고서가 완성됐다. 한 달 동안 작성된 보고서로 최종보고회가 개최되었다. 모두를 만족시킬만한 결과를 만들어내진 못했지만, 연구소의 발전과 변화에 대해 첫 단추를 채운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한 달 동안의 T/F 활동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깊게 알 수 없었던 연구소 현안에 대해 많이 알게 되고, 유능하신 연구관, 연구사들과 함께 일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혜와 방법을 배우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 또한 소중한 인연을 얻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도 되었다. 그리고 당장 올해 이루어져야 할 연구소 이전 사업에 대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뜻 깊은 활동에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연구소의 밝은 미래상을 그릴 수 있어서 행복했다.

이번 T/F 활동을 통해 이전 시기가 결정되었다. 대규모 이전인 만큼 부담도 많이 되고, 쉽지만은 않은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활동이 시발점이 되어 연구소 직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노력한다면,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국립기상연구소의 제주도 이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나아가 국립기상연구소가 동북아 기상 허브로서 자리를 잡고, 이전 사업이 우리 연구소의 비전인 세계 일류의 기상연구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계속해서 발전하고 변화하는 연구소가 되었으면 한다.



# 이별 후 다시 만난 그녀



그녀와 헤어진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막상 그녀가 내 곁에 없다고 생각하니, 밥을 먹는 것도 옷을 입는 것도 다 이상해졌다. 일상의 모든 것이 다 의미 없는 일인 것만 같았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시 만나자고, 정말 잘하겠다고 전하고 싶었다. 그런데,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그녀와의 연결고리마저 싹둑 잘라져버린 그 기분은 온전히 무인도에 똑 떨어진 것 마냥 막막하기만 했다.

회사에선 일을 하는 중 마는 중 메신저창만 바라봤다. 일할 땐 전화사용을 자제해야 하다 보니 늘 그녀와 메신저로 수다 떠는 게 낙이었는데, 이별 후 그녀는 계속 오프라인 상태였다. 그래서 메신저 로그인 창이 뜰 때마다, 혹시나 그녀가 아닐까 하며 기대하다 수없이 실망하는 일을 반복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때 예서야 드디어 그녀가 로그인을 했다. 두근두근, 심장이 마구 요동쳤다. 마지막 기회란 생각에 바로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잘 지내?”

그녀에게선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렇게 암흑 같던 1~2분이 흘러서야,

“넌?”

눈물이 날 것만 같은 답장이 왔다. 그녀도 내가 말을 걸어주길 기다렸던 건 아닐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온갖 생각이 들어서 혼란스럽기만 했다.

“난... 잘못 지냈어.”

“나도.”

나처럼 그녀도 힘들었던 걸까? 마음이 아파왔다. 피곤하다고 약속을 미뤘던 일, 기념일을 깜빡했던 일 등 그동안 그녀를 서운하게 했던 일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왜 진작 좀 더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했을까, 후회도 밀려왔다.

“미안해...”

나의 이런 말에 그녀는 또다시 말이 없어졌다.

“다 내 잘못이다. 그래도 난 너와 헤어질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자,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나 요즘 좀 힘들어. 그래서 말인데, 부탁 좀 해도 될까?”

기뻐했다. 그녀의 부탁이 내겐 기회가 될 수 있으니 말이다.

“당연 되지. 무슨 말해봐!”

“나 300만원만 빌려줄 수 있어? 잠깐만 쓰고 줄게.”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는데, 그깟 300만원이 중요할리 없었다.

“그래, 만나서 얘기하자.”

“아니, 급해서 그런데 지금 이체해줘.”

“지금?”

“내가 지금 보안카드를 안 가져와서 당장 필요하거든.”

“응?”

“잠깐 쓰고 이따 집에 가서 보내줄게.”

순간 땡~ 해졌다. 그녀는 보안카드 따윈 가지고 있지 않았다. 모든 이체는 은행에 직접 가서 하는 ‘아날로그형 인간’이 바로 그녀였기 때문이다. 웬지 이게 아닌데 싶었다.

“지금 전화해도 돼? 번호 그대로지?”

“응. 근데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미안.”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봤다. 역시나 없는 번호라는 음성안내를 듣고서야 깨달았다. 멋지게 낚였다는 걸! 상대가 그녀가 아니라 생각하니, 기가 막히면서도 무척이나 허탈해졌다. 마구 화라도 내고 싶었는데, 회사다 보니 꼭 참고 조용히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 누굽니까? 그렇게 살면 좋습니까?”

그제서야 상대방에서 딱, 한마디의 메시지를 남기고 훌쩍 사라졌다.

“훗, 차인 주제에!”

한동안 내 귓가엔 이 메시지가 계속 맴돌았다. 그 유명한 메신저 피싱에서 살아남았으니 다행인 건데, 왜 자꾸 울컥해지는 걸까!



# 한반도 및 지역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일관된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시·군·구까지 상세하게 나눈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이에 기상청은 한반도 전체 및 각 지역별로 미래 기후변화 경향을 한눈에 살펴보고, 이를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반도와 9개 권역별 기후변화 전망정보를 담은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책 내용보기 :** 기후변화정보센터 홈페이지([www.climate.go.kr](http://www.climate.go.kr)) > 열린마당 > 홍보·교육자료 > 기후변화 교육자료





### 이일수 청장 취임식(3.18)

제10대 이일수 기상청장 취임식이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 청장은 국가와 국민, 기상청과 기상가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기상청은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 있는 기상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변모하는 기상청의 살아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전합니다. | 편집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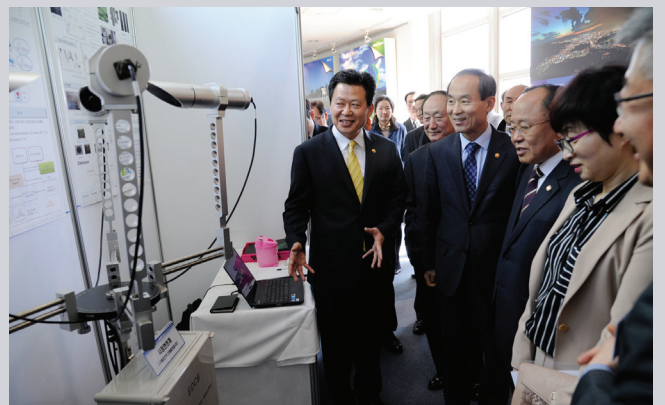


### 2012년 겨울철 방재업무 종료식(3.15)

국가기상센터에서 겨울철 방재업무 기간 동안 고생한 예보관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 세계 기상의 날 기념행사 개최(3.21)

윤성규 환경부 장관, 새누리당 최봉홍 국회의원과 민주통합당 은수미 국회의원, 전직 기상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한 대한민국, 날씨와 함께'라는 주제로 기념행사를 가졌다.







### 『기상·기후사진전 30주년 기념 특별전시회』 개최

세계 기상의 날과 기상사진전 30주년을 기념하여 '매일 매일의 경이로움, 당신의 날씨이야기'를 주제로 3월 21일부터 9일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 우남 이원철박사 50주기 추모식(3.28)

초대 관상대장 우남 이원철 박사의 50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한국천문연구원, 서울YMCA와 함께 기념식을 가졌다.



### 환경부장관 업무보고(3.26)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환경부와 기상청이 협업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최대한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고, 이후 기상청 화단에 소나무를 기념식수했다.

### 전국 기상관서장 회의(3.29)

전국 58개 소속기관의 관서장 등 총 85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상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 여럿이 하나되어 즐거워 Quiz!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머리 좀 식히면 어떨까요?  
 「하늘사랑」도 읽고, 상품도 타고, 스트레스도 풀고~♪  
 5분의 여유만 있으면 됩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 이번 달 퀴즈

- 조선 태종 14년에 개통된 관도 벼슬길로, 날아다니는 새도 넘기 힘들 만큼 높고 험한 고갯길을 뜻하는 말은?  
 ① 문경새재 ② 대관령 ③ 추풍령 ④ 박달재
- 무게 2.7g, 지름 40mm의 공으로 하는 스포츠는?  
 ① 농구 ② 탁구 ③ 야구 ④ 골프
- 순우리말로 '아띠'는 무슨 의미인가?  
 ① 연인 ② 부모 ③ 친구 ④ 동료

## 지난 달 퀴즈 정답

- ④ 어서 오세요
- ① 웨비게이션
- ③ 30주년

## 지난 달 퀴즈 정답자

- 문경준(서울) 2. 강정숙(안산)
- 박정식(충북) 4. 엄숙녀(경북)
- 오가영(울산)



## 퀴즈 정답은

4월 25일까지 전자메일(Kimhy80@korea.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름 · 주소 · 전화번호를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하늘사랑」은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매 정도(아래한글 10point, 줄간격 160%, A4용지 1장 반 정도)이고, 매월 20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글과 관련된 사진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채택된 외부기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인사발령

내용	일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승진	3.18	기상청	청장(차관급)	이일수
퇴직	3.18	기상청	청장(차관급)	조석준
전보	3.18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실	방송통신사무관 김하진
		기상산업정보화국	정보통신기술과	기상사무관 김희수
휴직	3.20	기상청	기상사무관	강남영
신규	3.26	관측기반국	국가태풍센터	기상사무관시보 변건영
		관측기반국	지진감시과	기상연구관시보 이지민
		국립기상연구소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	기상연구관 박순천
		국립기상연구소	응용기상연구과	기상연구관시보 임윤진
전보	3.26	기상청	청장실	기상사무관 김동순
		예보국	총괄예보관	기술서기관 신동현
		관측기반국	기상기술과	기술서기관(과장) 박정규
전보	4.1	기후과학국	기후예측과	기상사무관 박철홍
		예보국	예보기술분석과	기술서기관(과장) 이정환
		대전지빙기상청	수원기상대	기술서기관(대장) 류상범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기획과	기술서기관(과장) 김금란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운영과	기술서기관(과장) 손승희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분석과	기술서기관(과장) 윤성득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분석과	기술서기관(과장) 박중서
		관측기반국	국가태풍센터	기상연구관(센터장) 이종호
		예보국	예보기술분석과	기상사무관 최대범
		예보국	예보정책과	기상사무관 백선교

내용	일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전보	4.1	예보국	예보기술분석과	기상사무관 박경희
		예보국	예보기술분석과	기상사무관 조익현
		예보국	예보기술분석과	기상사무관 김성목
		기후과학국	기후예측과	기상사무관 정해정
		기후과학국	기후예측과	기상사무관 김병준
		기후과학국	기후예측과	기상연구관 이은정
		기후과학국	기후변화감시센터	기상사무관 정성훈
		관측기반국	국가태풍센터	기상연구관 장기호
		관측기반국	국가태풍센터	기상연구관 박상욱
		관측기반국	국가태풍센터	기상연구관 김지영
전보	4.1	관측기반국	기상기술과	기상사무관 신지홍
		부산지빙기상청	예보과	기상사무관 하태근
		부산지빙기상청	통영기상대	방송통신사무관(대장) 변동철
		대전지빙기상청	인천기상대	기상사무관 강신중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분석과	기상연구관 박혜숙
		관측기반국	국가태풍센터	기상사무관 윤왕선
승진	4.1	기후과학국	기후예측과	기상사무관 원덕진
		기상산업정보화국	기상자원과	기상사무관 김근현
		부산지빙기상청	울진기상대	기상사무관(대장) 최성식
		광주지빙기상청	흑산도기상대	기상사무관(대장) 황영하
근무지정	4.1	기상청	대변인실	기상사무관 장현식
파견연장	4.1	소방방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상사무관 박창수
		소방방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상사무관 송기욱

#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정원박람회입니다.



행사명 >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Call name : ECOGEO2013)

주제 > 지구의 정원 순천만 (Garden of the Earth)

기간 > 2013년 4월 20일 ~ 10월 20일 (6개월)

장소 > 순천만 일원 153만m<sup>2</sup>

주요내용 > 세계정원, 테마정원, 한방약초원, 꽃의 정원, 수목원, 국제습지센터, 저류공원 조성 등



2013년 기상청

행복한 대한민국~  
날씨와 함께!

# 우산 디자인 공모

"비오는 거리를  
디자인하라"

## 작품소재

기후변화 메시지를 담은  
디자인 또는 기상(하늘, 구름, 태양, 비, 바람 등)과  
관련된 자유 디자인

## 응모기간

2013. 3. 23.(토) ~ 4. 21.(일)

## 응모대상

날씨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일반 부문: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 학생 부문: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해당 연령 청소년

## 응모방법

기상청 페이스북([www.facebook.com/kmaskylove](http://www.facebook.com/kmaskylove))  
우산 디자인 공모 페이지

## 시상내역

- 최우수상(1점): 부상 200만원
- 우수상(일반/학생 각 1점): 부상 각 100만원
- 장려상(일반/학생 각 2점): 부상 각 50만원
- 입선(일반/학생 각 10점): 각 3만원 상당 상품권

## 문의

기상청 대변인실 ☎ 02-2181-0359

자세한 사항은 [www.facebook.com/kmaskylove](http://www.facebook.com/kmaskylove) 참조